

Living the Lotus 10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29



Members from the Taipei and Tainan Dharma Centers Join
the Leaders Training Retreat in Taichung, Taiwan,
from September 8 to 10, 2024

Living the Lotus Vol. 229 (October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미디어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iiving.the.lotus.rk-international@](mailto:i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모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마음을 갈아 부처로 돌아간다

니와노 니치코
입정교성회 회장



불성자각을 깊이 한다

석존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경작을 계속해 간다면 ‘모든 고뇌에서 해방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석존 눈 앞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에도 힘찬 메시지로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 당당한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여서 불도를 걸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난 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 한번이라도 마음을 갈고 닦으면 두 번 다시 고뇌할 일은 없을 것이다’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너무 뻔뻔한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토양을 부드럽게 경작할 수 있는 말과 행동—보살행—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때마다 자기 안의 부처, 즉 불성을 발굴하는 것이 고뇌가 적은 인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순간 부처와 같은 성질을 가진 자타의 존엄을 깨닫는다 해도 또 의문이 생기고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보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할 기회가 생기면, 불성 그 자체가 바로 나왔다는 기억을 되찾게 되고 그 자각이 깊어진다—이러한 일의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달에 입적회(入寂會)를 맞이하는 개조님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타의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복해서 설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의지처로 삼고 있는 경전 중 하나인 <법화경>을 ‘인간이 자신의 불성을 자각하는 중요성을 설한 경전’이라고 하고, 불성이라는 ‘양심과 진심과 선의’등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물’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항상 밝은 마음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밭을 갈고 닦기를 아주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 마음의 토양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유연성을 잃고 자타의 불성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랜 문헌(文獻)에 ‘내 몸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를 범부라고 한다’고 한 것처럼

럼, 실은 언제라도 부처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번뇌투성이인 나를 진정한 나라고 굳게 믿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불성을 발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성 그 자체인 본래의 나 자신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 이전에 개조님께서 하셨던 ‘불성’이란 곧 ‘자비심’이라는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이 자비심이 일어날 때나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들의 불성은 발굴됩니다.

예를 들면, 평소 아무 이유 없이 싫은 거미에게서 나와 똑같은 생명의 빛을 보고 살생을 멈춘다면, 그것은 자비심에 의해 거미의 불성을 배려한 것이며, 게다가 거미를 통해서 자신의 불성이 발굴되어 자각을 재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성의 자각이 조금씩 깊어지는 가운데서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우리들은 무심코 불만을 토로하거나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려심이 없는 자신과, 불성을 자각한 자신과의 차이를 부끄럽게 여기며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불성 자각이라니, 나에겐 무리한 일이야’하며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옛 고승들조차도 ‘큰 깨달음은 18번, 작은 깨달음은 셀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할 정도로 깨달음과 반성을 거듭하면서 항상 ‘부처와 같이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마음을 갈고 닦았기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고 깨달은 그 생각이 성장과 향상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체중생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이라는 것을 음미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살려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상냥함과 배려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조님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계속 쌓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대자비심, “불성”이라는 것은 점점 더 아름답게 빛나고’가 더해져서 ‘“불성”과 “불성”이 서로 울려퍼지는 부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신 대로, 본래 모두가 온갖 고뇌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존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성』 2024년 10월호



가정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 함께 크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입정교성회 스리랑카교회 쿠스마 우티·포디메니케

입정교성회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입회하셨습니까?

저는 공립학교 교사를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근무하던 불교계 학교에는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부처님께 급사를 하는 것은 저의 일과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지만, 집에서 가깝기도 해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급사를 하기 위해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가정교육 세미나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급사를 다 마친 후, 세미나에 참가해 듣다 보니 어느새 그 강연에 이끌려, 저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신선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사님은 특히, ‘잘 잤니?’ 하는 인사,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가정에서 부모가 솔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정에서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알고 있어도 막상 부모가 먼저 실천하려고 하면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 후, 저는 가정 교육세미나를 주최한 단체가 일본의 입정교성회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훌륭한 가정교육을 배워서 실천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몇일 후 콜롬보에 있는 입정교성회 스리랑카 교회를 방문하여 2018년9월9일 입회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가정교육의 보급에 아주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아주 감동을 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학부모님 들에게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부임해 왔던 초·중학교 등, 많은 학교에서 가정교육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에게 가정교육은 물론, 교성회의 존재와 법화경 가르침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 스리랑카에는 한달에 한번 매월, 불교에서 유래한 ‘포야데이(보름 날에 사원에 참배하는 날)라는 중요한 경축일이 있습니다. 입정교성회 스리랑카 교회에서도 이날, ‘포야데이 식전’ 이라고 하여, 법회날 식전과 같



스리랑카 교회에서 설법을 하는 포디메니케씨

이 독경공양 후에 회원분들의 설법과 스즈키 교회장님의 법화를 듣습니다. 저는 가정교육 세미나에 참가해주었던 분들을 이 ‘포야데이 식전’ 에도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15명이 입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회원 여러분의 조력을 받으며, 현재는 강사로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육을 배워서 가장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 것을 가르쳐주세요.

가정교육에서는 ‘부모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뀐다’ 는 이념 하에 먼저 부모인 ‘내가 바뀔 것’ 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칫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던가 ‘어떻게든 아이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가정교육에서는 아이들의

모습, 언동에게서 배워서 내가 바뀌어 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부모 자식이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성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받고 계세요? 또한 일은 계속하고 계십니까?**

스리랑카 교회에는 각 지역에 가정거점이 있는데, 회원들의 자택을 독경공양과 법좌를 행하는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점이 현재 스리랑카 전체 82거점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도량이 있는 콜롬보에서 버스로 약3시간 떨어져 있는 케갓라현의 가정거점장 역할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말하자면 지구의 주임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은 2년 전에 공립학교를 정년퇴임하고 현재는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교성회 교사 자격을 배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요?



스리랑카 교회에서 거행된 본존님 권청식 후, 스즈키교회장님(오른쪽)과 함께



자택에서 남편과

교사수여식을 위해서 저는 처음으로 입정교성회의 근본 도량인 대성당을 참배하였습니다. 원래 저는 상좌부 불교를 신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유명한 사원에도 참배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때와는 크게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성당의 장엄한 건물, 부드럽고 온화한 부처님 얼굴을 뵈게 되었을 때,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 웬지 모르게 눈물이 넘쳐흘렀습니다. <태어나서 정말로 다행이다. 교사를 하고 있는 덕분에 교성회와 인연이 맺어져서, 법화경과 만나게 되어서, 대성당에도 참배할 수 있었다>. 이런 여러가지 마음이 감돌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해졌습니다.

또한 교사수여식에는 많은 해외 회원들도 참가하고 있었지만, 저희들 회원이 교성회 가르침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나간다면, 반드시 전쟁과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수여를 기연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달해 나가고 싶다고, 부처님 앞에 새로이 정진

할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법화경에서 마음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법화경 법사품에 오종법사에 대해 설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교사의 자각에 서서 수지·독·송·해설·서사의 다섯가지 행을 마음에 항상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정교성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스리랑카 교회에서는 교성회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가정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가불교인 교성회는 생활불교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려서, 실천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러한 의미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준 가정교육은 교성회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로 감사하며, 서로 존경하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에도 가정교육은 오늘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국민들은 교육에 열심입니다만, 한편으로 육아로 고민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도 가정교육은 앞으로도 더욱더 스리랑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며, 이것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바라고 있는 것, 앞으로의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대성당에서 열린 교사 수여식 후, 해외 교회 배수자들과(앞 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교사수여식 참가자들과(왼쪽부터 포디메니케씨, 아카가와 케이치 국제전도부장님, 함께 수여받은 스리랑카 교회의 배수자, 당일날의 역할자)

저는 아직 교사로서 미숙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으로 교성회 가르침과 법화경을 배우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그다지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과 대자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가까운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르침을 배워, 실천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교성회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더욱 더 공부해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과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전해가고 싶습니다. 기쁘게도 11월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처음으로 가정교육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일, 많은 사람들이 회장에 와 참석해 주기를 기도하며 벌써부터 아주 기다려집니다.

일본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평화롭고 풍요로운 불교국가입니다. 그러한 일본인의 정신이 전세계로 전달되기를.





부처님께서 살려주셔서 길을 걷듯이 살다

니와노 닛쿄
입정교성회 개조님



법화경에는 우리들이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곳에 설해져 있습니다. 「비유품」의 「지금 이 삼계는 다 내가 둔 바이니 그 가운데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라. 지금 이곳에 모든 환난이 많음이나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호하느니라.» 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우리들 모든 인간을 「모두 나의 자식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부처님께서서 살려주셔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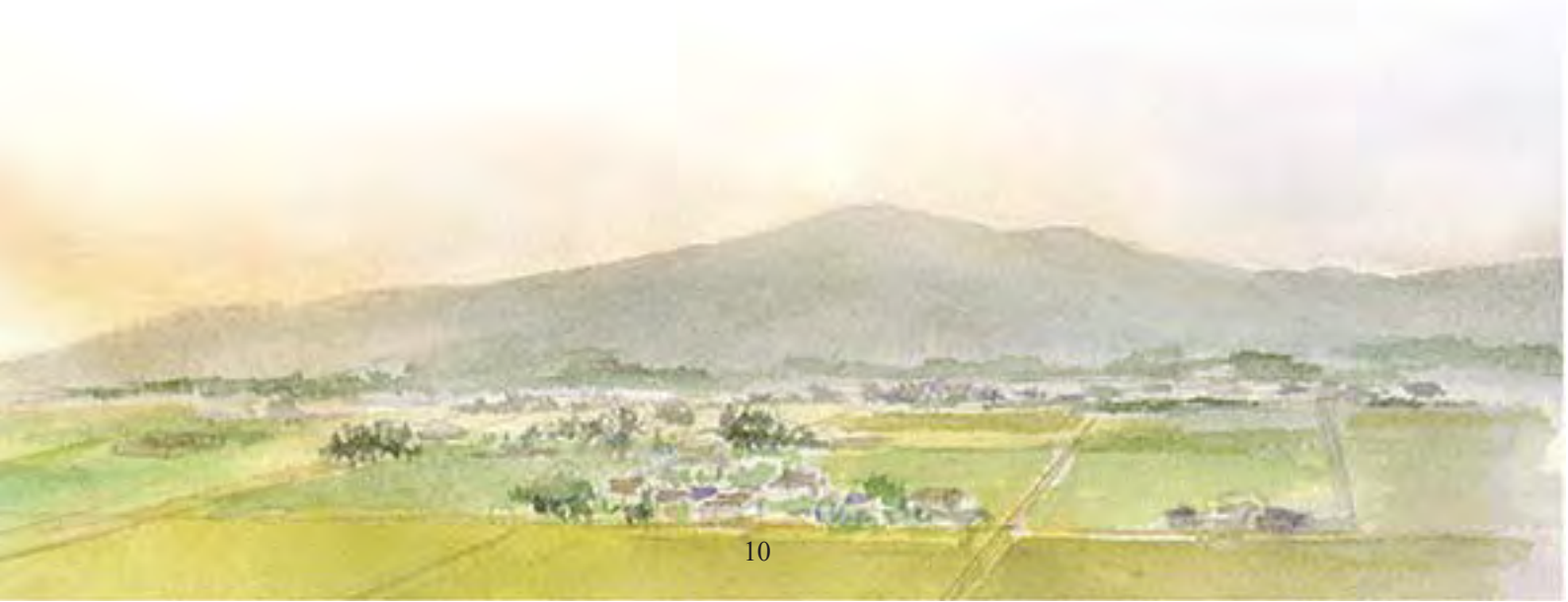
그리고 「모든 환난이 많음이나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호하느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지만 부처님께서서는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래수량품」에서는 「항상 법을 설하여 수 없는 억만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들이 「불도에 들어가자」고 발심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교화 해주신 덕분이며 우리 모두는 불도에 들어가게끔 태어나서, 살려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래수량품」 마지막에는 「매양 스스로 이 같은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무상도에 들어 속히 불신을 이룩하게 할까 하노라」라고,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속히 부처로 만들고 싶다고 항상 염하고 계신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문을 읽으면 우리들이 부처님에 의해 살려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이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들은 고분고분하게 옆도 돌아보지 말고 불도를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니와노 닛쿄 헤이세이법화집1 『보리의 싹을 틔움이라』 p.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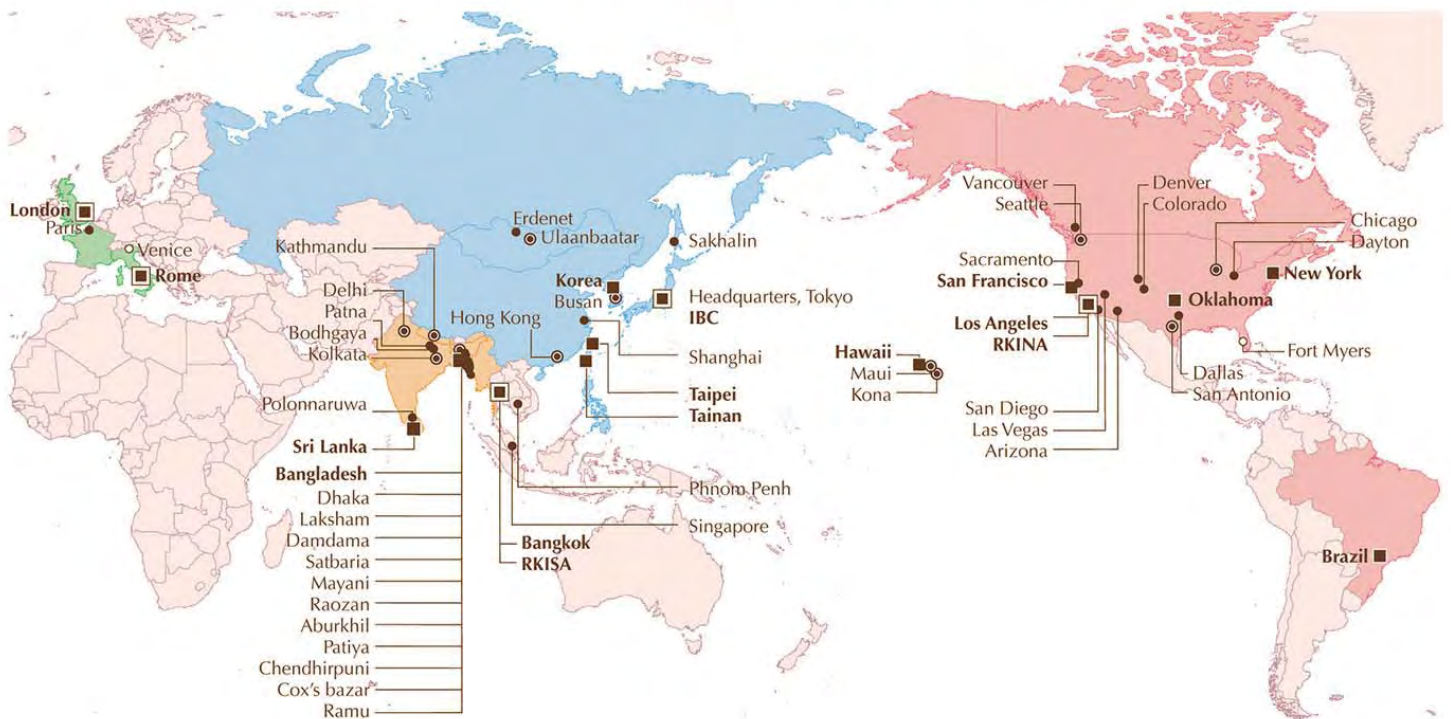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facebook



X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